

베로니카의 은혜, 나의 은혜!

마가복음 5:34

초대교회의 전승에 의하면, 오늘 본문의 여인은 베로니카라 하는 여인입니다.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다 쓰러지셨을 때, 자신의 손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렸던, 거기에 예수님의 얼굴이 찍혔다 하는 여인입니다. 다락방기도회를 통해서 지난 5일 동안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이 여인 베로니카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해를 매듭하고 2025년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34절 예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5:34]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이다

1. 들림의 은혜 (34a-)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들리는 은혜’를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들립니다. 복음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27절) 전에는 예수의 소문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있었습니 다. 들리지를 앓았던 것입니다. 귀에 들어오질 앓았습니다. 왜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병들기 전에는 나의 가진 소유가, 나의 교만이 들리는 것을 막았습니다. 병들고 나서요? 내 상처가, 그로 인한 원망과 분노가 너무 커서 예수의 이름이 들리지를 앓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 잃었다 싶었을 때, 겸손히 낮아진 그때, 비로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28절)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림의 은혜는 믿음의 은혜입니다. 이에 여인은 예수를 따르는 무리에 끼어 들어가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댍니다. 치유를 경험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34절) 하 나님의 딸이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들림의 은혜, 믿음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10:17]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 느니라

[열왕기하 5:11-14]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와 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¹²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니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¹³그의 종들이 나아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¹⁴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 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요기 42:5]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2. 놓임의 은혜 (34b-)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34b)

우리는 다 매여 있던 사람들입니다. 세상 애굽에 매여 있었습니다. 죄에 매여 종 노릇하던 인생들이었습니다. 마귀에게, 어둠의 영에 매인 삶입니다. 그런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으로 놓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병들기 전, 여인은 어찌면 세상 소유에, 세상 연락에 매여 살았습니다. 병

이 들면서는 상처에 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세상을 향한 원망과 미움, 분노에 매입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이 들리면서 예수님과 접촉을 통해 이 모든 것으로부터 놓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놓임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병에서 놓임받는 것도 큰 은혜이지만, 죄로부터, 율법의 저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놓임받는 것은 비교할 것 없는, 큰 은혜입니다. 자유의 은혜요, 영생의 은혜입니다.

[누가복음 17:18,19]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¹⁹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로마서 6:6]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로마서 6:22]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로마서 8:1,2]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²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3. 평강의 은혜 (34c-)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34c-)

[평안 + 건강 = 평강] 그동안 평강이 없던 여인이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서 마음도, 영도 함께 병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접촉을 통해 평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몸과 마음과 영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느 하나가 아프면 다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새해에는 주님과 더 넓고도, 깊고도, 잦은 접촉을 통해 몸도, 마음도, 영도 다 같이 평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안’(에이레네)은 샬롬입니다. 문제가 없는 평안이 아닙니다. 문제 가운데에서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평안입니다. ‘건강’(휘기에스)은 ‘온전한, 균형 있는, 생명력 넘치는’ 건강을 말합니다. 새해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가정에, 직장과 기업에, 그리고 교회와 우리나라에 골고루, 가득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33]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사야 26:3/ 개역]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예레미야 29:11]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빌립보서 4:6,7]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⁷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데살로니가후서 3:16]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요한삼서 1:2]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